

걸프사태 관련 우리 정책의 성과와 반성

— 동력자원부 —

1. 걸프사태기간중 국제석유시장 동향 및 우리의 주요 대응조치

(1) 국제석유시장 동향

○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침공('90.8.2)으로 야기된 걸프사태는 이 지역이 자유세계의 주요 석유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를 낳았으며,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禁輸措置로 인한 하루 450萬 배럴의 원유공급부족은 국제석유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 국제 원유가격의 폭등과 수급불안의 긴장세를 초래함.

- 국제 원유가격은 9월말에 40\$/B線까지 폭등한 바 있으며, 사우디등 증산조치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 계속 고유가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쟁임박설과 외교적 노력등 사태전개에 따라 등락세를 보여옴.
- 또한석유제품 가격의 경우에도 동절기의 계절적 수요증가와 다국적군의 수요로 인하여 원유에 비해 더욱 고가로 폭등하고 국제 석유시장의 물동량도 극히 제한되는 품귀현상이 지속됨.

〈걸프사태 기간중 국제석유가격 변동 추이〉

			1990. 8. 1 (사태 전)	1990		1991	
				9. 28	12. 31	1. 16(전쟁 전)	3. 21
원 유 (\$/B)	두바이		18.27	37.04	24.69	25.33	15.55
	브렌트		20.58	41.12	28.84	30.23	19.40
제 품 (\$/B)	등유		25.20	63.25	35.25	45.25	26.45
	경유		24.10	53.25	37.75	45.75	28.75

(2) 우리의 주요 대응조치

쿠웨이트, 이라크의 禁輸에 따른 국내 석유도입 차질과 국제석유가격의 폭등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에너지 소비억제 시책과 특별석유수급대책을 통한 국내 수급안정과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을 통한 석유류가격안정을 기하여 걸프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조치를 강구

- 쿠웨이트, 이라크의 금수에 따른 원유도입 부족물(109천 B/D)을 사우디 등 他 산유국으로부터 장기계약으로 全量 대체.확보
- 사태직후 정부가 보유한 비축원유를 極東精油에 대여(1,330千 배럴)하여 정상 가동을 유지토록 하고, 걸프전쟁('91.1.17)기간중 수도권 제 품비축(등유, 경유)을 긴급 무제한 방출하여 민생유류의 가수요 현상을 초기에 해소함.
- 국제석유가격 폭등에 따른 국내 유가부담을 석유사업기금을 활용, 흡수하여 사태전 수준으로 석유류가격을 안정유지 하므로써 가격안정 및 산업경쟁력에 기여
- 걸프전쟁 발발('91.1.17)과 동시 비상시 소비 절약 시책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억제와 근검절약의 사회분위기 조성

2. 에너지부문의 대응평가

긍정적인 면

- (1) 기금완충을 통한 국내 석유류가격 안정→물가 안정에 기여
- 석유사업기금의 油價 완충재원 활용으로 걸프사태('90.8.2) 이후 高油價 부담을 흡수함으로써 국내석유류 가격을 안정 유지
- 기금완충의 효과('90.8월-12월 기간중)
 - 국내 석유류 가격: 34% 인상효과 억제(공장도 기준)
 - 總 油價補填額('90.8-12) : 9,131억원

-물가영향: 도매물가: 2.96%P 인상억제 효과

소비자물가: 0.52%P 인상억제 효과

- * 만약 기금의 완충역할이 없었다면 '90년도에 실시된 한자리 물가수준(도매 7.3%, 소비자 9.5%) 유지가 어려웠을 것임.
- * 총 유가보전액('90.8-'91.2) : 11,891억원

(2) 政府備蓄油 활용으로 탄력적인 수급대처

- 석유사업기금의 투자로 마련된 정부비축유를 활용하여 공급 차질상황에 적극 대처 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
- 걸프전쟁 기간중 수도권지역의 정부제품비축유를 긴급 무제한 방출하여 민생용 유류(등유, 경유)의 假需要를 조기 해소함.

: 방출실적

}	등유 : 394千 배럴 (1.16-2.13)
	경유 : 983千 배럴 (1.17-2.23)

- 쿠웨이트 원유금수에 따른 원유 부족분을 極東精油에 긴급 대여하여 정상적인 생산 가동을 유지

대여물량 : 1,330千 배럴('90. 8.18 대여→11.18 상환)

- 정부비축이 全無 하였던 지난1, 2次 석유파동과는 달리 정부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걸프사태 기간중 국제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정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음.

- 정부비축수준

}	물 량 : 38.4萬배럴
	지속일수 : 33日分

-석유사업기금 투자('90년말 기준) : 9,425억원

- (3) 동절기간중 국내석유류 수급의 원활화
 - 수급차질이 예상된 민생용유류(등유, 경유)의 사전 각종 수급 대책의 추진으로 월동기간중 수급 원활화
 - 민생용 유류의 생산수를 조정으로 국내 공급 능력 확충
 - 가정용大型보일러의 연료전환촉진(燈油→輕油)
 - 유조차에 의한 등유판매 금지

- 등경유 유종간의 가격구조 개선 등
 - 日日 석유수급 대책반 및 소비자 불편신고 센터 운영
 - 이에따라 그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등유소비가 지난 동절기간 중에는 계획대비 27% 감소되고, 전년대비 21% 증가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향후 동절기 수급안정에 기여(등유 수입소요의 감소)

〈동절기 소비실적(10. 1~3. 11)〉

(단위 : 백만 배럴)

	1989 동절기 (10. 1~3월말)		1990 今番 동절기 (10. 1~3. 11)				
	소 비 실 적	전 년 대 비 증 가 율	계 획		실 적		
			물 량	전 년 대 비	물 량(증감량)	계 획 대 비	전 년 대 비
등 유	15.3	82.8%	22.7	65.4%	16.6(△6.1)	△27%	21%
경 유	49.8	14.3%	50.3	13.7%	52.7(2.3)	5%	22%

- (4) 걸프전쟁 발발이후 소비절약시책의 실시('91.1.17~3.5)
 - 국민의 적극적인 기여와 협조로 그동안 우려되었던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고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됨.
 - 에너지 소비절약 효과 : 하루 14억원 절약

(1단계 실시기간중 : 약 660억원 절약)

- 차량10부제 운행효과
 - 절감량 : 평소의 12% 절감 (하루 7.9千 배럴)
 - 절감액 : 하루 6億원
- 각종 절전시책의 효과
 - 절전량 : 평소의 약 2% 수준절감 (하루 6.5백만 kwh)
 - 절감액 : 하루 1.8億원
- 節電量 규모 (하루 6.5百萬Kwh)
 - 서울화력(25萬kw) 발전소 1臺의 발전량 해당
 - 大田直轄市 전력소비량 : 하루 5.7百萬Kwh
- 發電用 열료전환에 따른 석유소비절감 효과 :

— 석유소비절약 : 하루 37.6千배럴

— 발전연료비 절감액 : 하루 6.2억원

* 石油發電 비중 : (사태전) 27.8% → (사태후) 20.2%

- 또한 차량 10부제 운행으로 에너지절약효과 이외에도 교통량해소에 크게 기여함(도심지역 주행속도 13%향상, 22.1km/h→25.0km/h)

보완할 면

- (1) 정부비축능력의 추가 확보 필요→제품 및 LPG 비축을 중심으로 보강
 - 걸프사태 기간중 급변하는 국제 석유정세하에서 효과적인 대처와 정책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었던 것은 정부비축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임. (정부비축수준 : 약 33日분)
 - 그러나, 그 규모면에서 선진국의 정부비축수준(90日분 수준)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속히 추가설비의 건설이 필요함.
 - 특히, 추가비축은 수도권 및 대소비처 제품수급을 위하여 민생유류 및 LPG 등 제품비축이 보강되어야 할 것임.

- (2) 전국 송유관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수송능력의 제고 및 현대화 필요
 - 걸프전쟁을 전후한 가수요 발생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 유조차량과 선박에 의한 수송능력에 한계가 있고, 향후에도 교통난의 가중과 함께 수송능력의 한계로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재 공사중인 京仁구간(仁川-서울)을 계획대로 '92년초까지 완공토록하고, 남북구간(麗川-서울, 漣山-서울)도 '93년말까지 완공토록 차질없이 추진 필요
- (3)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 기능의 재조정
 - 걸프사태 이후 국제 원유가격의 폭등에 따른 국내유가 부담을 기금원충재원으로 흡수하여 국내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내물가안정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크게 기여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의 보완이 필요함.
 - 국제 석유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 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중 기금을 활용한 유가완충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나,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거나 고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이를 기금으로 유가완충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 기금의 유가완충용 사용 증가는 결과적으로 사업성기금의 재원부족을 초래케 됨으로 석유 비축증강 및 국내의 투자개발, 에너지 소비절

- 약투자 등 에너지 안정공급 기반체제를 갖추는데 필요한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유종간의 가격구조 변화와 국내 가격구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제품 수입기피 등 국내 수급불안과 국내 가격구조의 경직성으로 연료전환등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역기능 문제가 있음.
- (4)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한 원자력발전 및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
 - 전체 發電量의 50% 수준인 現 원자력발전 비중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여 점차 심화되는 석유의존도를 억제토록 하여야 함.
 - 原子力發電의 석유 대체효과('90년 실적)
 - 원자력 발전량 : 52,887백만KWH
(전체 발전량의 49.2% 공급)
 - 석유 대체효과 : 76.5백만 배럴
(국내 석유소비량 334백만 배럴의 23% 해당)
 - 發電費用 절감효과 : 7,500억원
(원자력과 석유화력의 發電單價 차이)
 - 아울러 대체에너지의 실용화 및 보급확대로 석유의존도를 축소하고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됨

〈우리나라 에너지의 石油의존도 추이(%)〉

石油의존도	'73	'80	'87	'88	'89	'90
	53.8	61.1	43.7	47.0	49.6	53.6

3. 종합 평가

- 걸프사태로 야기된 비상석유위기 국면을 맞이하여, 석유비축의 활용 및 석유사업기금을 통한 유가완충 등으로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고, 효과적인 소비 억제시책으로 국민적인 협

- 조와 참여를 통해 걸프사태를 순조롭게 극복하게 됨.
- 이번 걸프사태를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에너지 안정기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임. ♣